

# 夫餘, 高句麗 社會의 北方文化的 要素에 대하여

曹 泳 光\*

## 국문초록

부여와 고구려는 그 중심지가 지리적으로 만주에 위치하여 인접한 유목, 수렵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한 북방문화적 요소는 사회 풍속과 신화, 정치, 고고학 증거 등 여러 방면에서 발견된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취수혼, 술서제와 같은 풍습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흉노, 선비, 여진 등 북방 유목, 수렵 사회에서 성행하였던 풍속이다. 부여,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와 동명신화에서도 일광감응, 어별부교 등 북방 유목, 수렵 민족 설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티프가 많이 존재한다.

정치 체제에서도 부여에서는 가축 이름을 딴 관직명이 존재하였고, 고구려에는 좌, 우보제, 왕비족의 존재 등 유목·수렵 사회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 또한 부여, 고구려 모두 수장층의 칭호로 加를 사용해 汗, 可汗 등 유목 군주호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역시 양자 간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큼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근래에 실시된 고고학 조사에서도 부여와 고구려가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주제어] 유목 사회, 수렵 사회, 취수혼, 신화, 가축 이름 관명, 좌·우보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부여의 지리적 위치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 본 북방문화적 요소 |
| II. 부여, 고구려 사회 습속과 신화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 | V. 맺음말                                   |
| III. 부여, 고구려의 정치체제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    |  |

## I. 머리말

부여와 고구려는 늦어도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역에 존속했던 濊貊系의 고대 국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aegca@naver.com

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두 국가는 인종, 언어, 풍습 등 여러 방면에서 유사점이 많았으며,<sup>1)</sup> 고구려는 자신의 출자를 부여로 기억하고 있었다.<sup>2)</sup> 종족적으로 동일한 예맥족이 세웠고, 지리적으로도 남북으로 인접하여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 온 고구려와 부여는 정치 관계를 제외하면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 간 매우 큰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그 지리적 특성과 문헌과 고고학 증거를 통해 밝혀진 당시의 사회상 등을 고려하면 북방문화적 요소, 즉 유목·수렵 사회의 특징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구려의 경우 초기부터 동쪽으로 읍루, 말갈 등 통구스 계통의 종족과 접촉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주로 수렵 혹은 반농 반렵의 생산 양식을 갖고 있었다.

부여는 중국 동북 평원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는 동호계 유목민, 동으로는 읍루(숙신)계 수렵민, 북으로는 수렵, 유목민 양자 모두와 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교류나 투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 기록과 고고학 자료들에 근거해 볼 때 이들 유목, 수렵민 집단은 기회가 되는 대로 부여 영내로 진입하려 압박하였고, 부여가 약화되면 실제로 들어오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부여 지배층 스스로가 북에서 왔음을 밝히는 건국 설화를 갖고 있음을 통해 볼 때 그 북방 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부여와 고구려 사회가 갖고 있던 북방문화적 요소, 즉 인접한 유목·수렵 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파편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사회 전반에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해 보았다. II 장에서는 부여, 고구려의 사회 습속과 신화 분석을 통해 북방문화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III 장에서는 정치 체제를 통해 부여, 고구려 사회의 북방문화적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IV 장에서는 부여의 지리적 위치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부여, 고구려 사회 습속과 신화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

부여는 일찍부터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西團山文化라는 선진적인 문화를 영위하면서 국가체제를 마련하

1) 고구려가 부여에서 출자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료는 다음과 같다.

高句麗(중략)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三國志』魏書 東夷 高句麗), 高句麗者, 出於夫餘(『魏書』東夷 高句麗)

2) 고구려인이 직접 남긴 「廣開土王碑文」에는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시조의 출자에 관한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최고 지배층의 시조 출자 인식은 곧 국가와 동일시되었으므로 고구려 국가의 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3) 모용 선비의 침입을 받은 후 西徙近燕한 것과 물길의 압박에 의해 문자왕대 부여왕이 고구려에 항복한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부여가 주변의 유목·수렵 민족들에 의해 많은 압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이종수는 본래 부여의 영역이었던 吉林省 九臺市 인근의 上河灣鎮 보루성 유적 등을 근거로 黑龍江省 七臺河市, 雙鴨山市, 佳木斯市 일원에 살고 있던 물길이 3세기 후반에 남하하여 4세기 중반에는 부여의 동쪽 지역을, 그리고 5세기말에는 결국 부여를 멸망시키고 부여의 중심지였던 제2송화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종수, 「三江平原地域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30쪽).

었다.<sup>4)</sup> 부여의 지리적 위치는 농업 경제와 유목 경제 지역의 교차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목축이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 구조와 문화적 측면에서 유목 사회적 특징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부여의 혼숙이 유목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혼인 습속인 '取嫂婚'<sup>5)</sup>인 것과 정치 제도, 유물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취수혼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인 유목 민족 국가인 흉노의 풍습에는 아버지와 형이 사망하면 계모나 형수를 아내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곧 취수혼이다.<sup>6)</sup>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娶嫂婚(levirate)은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농경 사회에서는 악덕으로 여기지만 유목 경제하의 북방 민족들에게는 동산(가축) 위주의 재산과 종족 집단의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한 제도로 인식되었다.<sup>7)</sup>

탁월한 기동력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빈번하게 전개된 전쟁으로 인해 유목 사회에서는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충원을 위한 취수혼의 풍습은 흉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하는 선비, 거란, 몽골 등의 유목 민족은 물론, 여진(만주)과 같은 수렵 민족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풍습이 존재한 이유는 죽은 형의 재산과 어린 자식의 이탈을 방지하여 가족들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취수혼의 전통이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sup>9)</sup> 부여에서 이동해 온 초기 고구려의 지배층이 그러한 습속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추측키란 어렵지 않다.

고구려에는 앞에서 언급한 취수혼 외에도 솔서혼(데릴사위제)라는 독특한 혼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또한 유목, 수렵 경제 중심이었던 북방 민족들 사이에서 흔하게 보이는 풍습이다. 솔서혼은 소위 혼납 금제로,<sup>10)</sup> 매매혼의 형태를 띤 것이다. 즉 혼인을 위해 신랑측이 신부측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오환,<sup>11)</sup> 실위<sup>12)</sup> 등의 사례가 유명하다. 오환, 실위 외에도 선비 계통의 유목 민족인 吐谷渾이나

4) 서단산 문화는 부여의 선형 문화로 그 후기 유형인 泡子沿前山 유적(포자연 문화)이 초기 부여 문화로 인식된다(吉林市博物館,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6).

5) 夫餘(중략)兄死妻嫂, 與匈奴同俗(『三國志』 魏書 東夷 夫餘).

6) 중국에서는 嫂繼婚으로 칭해진다(馮繼欽, 『我國阿爾泰系諸族的收繼婚述略』, 『龍江社會科學』 1995-1; 謝冰雪, 『匈奴婚俗中的收繼婚』, 『青海民族研究』 2007-2).

7) 노태돈은 유목이나 목축 경제의 사회는 부계 父處제 사회로, 경제생활의 핵심인 가축과 초지를 여러 가구가 공동 관리·소유하는 형태의 공동체 사회였으므로 취수혼의 관행이 적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으므로 북방 계종족 사이에서 선호혼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216쪽).

8) 田中克己, 『北アジア諸民族におけるレウイレート』, 『北亞細亞學報』 3, 1944.

9) 고구려에서 취수혼 풍습이 있었던 것은 '高句驪者(중략)兄死妻嫂(『梁書』 권50 東夷 高句驪)'라는 기록과 고국천왕비 于氏의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노태돈은 이러한 혼납금 풍속이 고구려, 부여뿐만 아니라, 옥저, 오환, 몽골, 투르크, 만주 등 북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퍼져 있음을 밝혔다(노태돈, 위의 책, 186쪽).

11) 魏書曰烏丸者東胡也。(중략)其嫁娶皆先私通, 略將女去, 或半歲百日, 然後遣媒人送馬牛羊以為聘娶之禮. 婿隨妻歸, 見妻家無尊卑, 旦起皆拜, 而不自拜其父母. 為妻家僕役二年,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 一出妻家. 故其俗從婦人計, 至戰鬪時, 乃自決之(『三國志』 권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烏丸條 夾註).

오환의 혼숙과 고구려의 혼숙이 유사함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노태돈, 위의 책, 215쪽).

12) 오환과 같은 유목 민족인 실위의 결혼 풍속에 대하여 '婚嫁之法, 男先就女舍, 三年役力, 因得親迎其婦. 役日已滿, 女家分其財物, 夫婦同車而載, 鼓舞共歸.'(『舊唐書』 권199下 北狄 室韋)라고 전하고 있다. 즉, 남자가 먼저 여자의 집에 가 3년 동안 力役을 한 뒤 그 아내를 데리고 친가로 온다. 役日이 차면, 여자 집에서 재물을 나누어 주며 부부가 같은 수레를 타고 북치고 춤추며 함께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실위 혼인 풍습은 고구려와 유사한 데릴사위제의 형태를 띤 매매혼에 해당한다. 김영심은 이와 같은 실위의 혼인 풍습이 고구려 서옥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증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김영심, 『혼인습속

남실위에서 그와 같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그리고 수렵 민족인 여진족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sup>14)</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방 유목·수렵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신부대에 관한 기록이 많다.<sup>15)</sup> 이들 북방민족의 매매혼 풍습은 고구려 서옥제와 본질적으로 매우 닮아 있다. 모두 고구려와 지리적으로 연접하거나 활동 범위가 겹치는 종족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고구려 사회에 유목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방 유목, 수렵 민족들과 고구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매매혼의 풍습은 부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여에서는 부인이 투기하면 죽여 그 시체를 산 위에 두어 썩게 하는데, 여자 측의 집에서 시체를 회수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16)</sup> 혼인 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낸 혼납금을 반납해야만 시체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sup>17)</sup>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서도 북방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sup>18)</sup>는 본래 부여 건국 신화인 동명신화<sup>19)</sup>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두 신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티프에 일부 요소를 빼고는 거의 같은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신화의 중요한 화소들인 日光感應은<sup>20)</sup> 선비족을 필두로 북방 몽골계 유목민족 시조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온

과 가족 구성 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여성」,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334쪽).

13) 婚禮, 富家厚納聘, 貪者竊妻去(『新唐書』卷221上 西域 吐谷渾).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중략)婚嫁之法, 二家相許竟, 輒盜婦將去, 然後送牛馬為聘, 更將婦歸家, 待有孕, 乃相許隨還舍(『北史』卷94 室韋).

14) 여진인도 이와 유사한 풍습을 지녔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혼납금을 지불하고 3년 동안 처가에서 일을 한 뒤, 친가로 돌아올 때 여자의 친정에서 물자를 주었다고 한다(『大金國志』권39 婚姻條 참조). 이들 퉁구스계 민족들에게 취수혼과 더불어 데릴사위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선호용으로 존재하였다(Kraheninnikov, S. Petrovich, *The history of Kamschatka and the Kurilski Islands with the Countries Ajacent*, Americana Clasica Quadrangle Books, 1962, pp.291~292).

15) 이러한 관습이 약탈혼이 행해지게 된 배경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김영심, 앞의 논문, 335쪽).

16) 婦人妒 皆殺之尤憎妒已殺, 尸之國南山上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三國志』魏書 東夷 夫餘).

17) 노태돈, 「부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18)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妻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 問之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熊神山下鴨綠邊室中, 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棄之, 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 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過之, 置於暖處, 有一男兒, 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然異常, 自作弓矢, 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金蛙有七子, 常與朱蒙遊戲, 其伎能皆不及朱蒙. 其長子帶素言於王曰朱蒙非人所生, 其爲人也勇, 若不早圖, 恐有後患, 請除之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而減食令瘦, 驚者, 善養令肥. 王以肥者自乘, 瘦者給朱蒙. 後獵于野, 以朱蒙善射, 與其矢小而朱蒙獸甚多. 王子及諸臣又謀殺之. 朱蒙母陰知之, 告曰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而不可. 與其遲留而受辱, 不若遠適以有爲. 朱蒙乃與鳥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 行至淹淪水 欲渡無梁, 恐爲追兵所迫. 告水曰我是天帝子河伯外孫.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於是, 魚鼈浮出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三國史記』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19) 北夷蒙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下而,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豬溷中, 豬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 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淪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東明之母初妊時, 見氣從天下, 及生, 棄之, 豬馬以氣呼之而生之. 長大, 王欲殺之, 以弓擊水, 魚鼈爲橋. 天命不當死, 故有豬馬之救 命當都王夫餘, 故有魚鼈爲橋之助也(『論衡』吉驗).

20) 신화학 방법의 연구에 의하면 선비, 거란, 몽골 등 몽골어계 민족의 시조 설화에는 일광감응, 天女, 黃犬 승배, 말 승배, 소 승배 등이 핵심 화소로 등장하고 있다(최원오, 「동아시아 알타이계 민족의 민족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구비문학연구』 11, 2000). 잘 알려진 대로 일광감응은 동명 신화와 주몽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리고 부여에는 대가의 명칭으로 마가, 구가, 우가 등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 동물에 대한 승배를 엿볼 수 있고 이는 유목적 전통이 강한 몽골어

다.<sup>21)</sup> 魚鼈浮橋 설화는 북방계 유목 민족의 설화에 흔히 등장하는 것이다.<sup>22)</sup>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소개는 약하기로 하겠다.

다만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의 경우 부여 건국 신화인 동명 신화와 함께 日光感應 및 魚鼈浮橋라는 공통 화소 외에 몇 가지 요소가 더 첨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난생 설화와, 시조모(柳花), 金蛙의 존재 등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柳花와 金蛙이다.

주몽 신화에서 시조모 유화는 시조를 이끌고 후원하는 매우 중요한 조력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를 地母神(穀靈神)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한 그의 역할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이름인 柳花, 즉 버드나무의 존재이다. 버드나무는 神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초원과 삼림 지대에서 숭배되어 왔다.<sup>23)</sup>

여진, 만주 등 통구스계 수렵 민족들의 설화에서도 버드나무는 중요한 화소로 등장한다.<sup>24)</sup> 특히 만주족의 신화에서 버드나무는 창세 여신으로서 ‘아부카허허(阿布卡赫赫)’, 또는 버들어미라는 의미의 ‘포도마마(佛多媽媽)’로 등장하며 신격을 부여받는다.<sup>25)</sup> 포도마마는 『滿洲原流考』에 기재된 만주 건국 신화에서 시조인 부쿠리운순(布庫里雍順)을 낳은 포구룬(佛古倫)으로 간주된다.<sup>26)</sup> 만주족의 건국 설화 속의 버드나무 시조모 화소와 고구려 건국 설화의 柳花 화소는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으며, 만주족 외에도 흉노, 선비, 몽골, 카자흐 등 많은 유목 민족들의 민족 기원 설화 속에 버드나무가 등장하고 있다.<sup>27)</sup> 요컨대 神木으로서 버드나무를 숭배하는 전통은 북방 유목·수렵 민족들에게 넓게 퍼져있었으며, 고구려 또한 같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28)</sup>

고구려 건국 신화의 화소 중 주목되는 또 다른 하나는 개구리에 대한 부분이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의 모친인 유화의 대우훈 대상이자, 주몽의 양부로 그려지는 금외왕 관련 화소가 그것이다.<sup>29)</sup> 개구리는 흑룡강 하류에 거주하는 통구스족의 일파인 혁철족에게 조상령으로 숭배되었다.<sup>30)</sup> 그런데 이 개구리 화소는

계 종족들의 설화에도 관련지을 수 있겠다.

부여, 고구려 건국 신화에 중국 고대 신화에서 차용된 모티프가 있으며, 그러한 유형의 신화가 계기적으로 변용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박승범, 「부여국의 신화적 변동과 동명신화의 시, 공간적 추이」, 『한국사학보』 37, 2009).

21)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 제국의 사마니즘』, 민속원, 2001, 264~265쪽.

22) 三上次男, 「魚の橋の話と北アジアの人々」,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485~489쪽.

23) 박원길, 「코톨라칸의 즉위의례에 나타나는 신목효선의식에 대하여」, 『중앙사론』 10, 1998, 372쪽.

24) 이들 민족의 설화에 등장하는 주요 화소는 일광감응, 곰 숭배, 水神 숭배와 함께 신목(버드나무) 숭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최원오, 위의 논문 참조). 이러한 화소는 고구려 주몽 신화에 거의 모두 등장하고 있어 그 기원이 어딘가를 불문하고 고구려가 수렵 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짐작케 한다.

25) 만주족 창세 신화인 「天宮大戰」에는 버드나무 여신인 아부카허허가 세상에 생명을 퍼뜨리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이종주,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화」, 『구비문학연구』 4, 1997; 陶陽 等 編, 『中國神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26) 포구룬 역시 포도마마와 마찬가지로 버들엄마(柳枝娘娘, 柳媽媽)로 불리며 버드나무가 인격화된 시조모로서 창세여신, 풍요의 여신이었다(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 원리」, 『구비문학연구』 12, 2001 참조).

27) 최혜영,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접점」,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참조.

28) 부여 또한 유사한 신목 숭배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그 대상이 고구려처럼 버드나무가 아니라 소나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조영광, 「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 『선사와 고대』 44, 2015). 그러나 소나무 역시 버드나무와 함께 흑룡강 하류 삼림 지대에서 신목으로 숭배되었으므로(박원길, 앞의 논문), 북방 민족들 사이에 퍼져있던 신목 숭배 전통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범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9) 두만강 유역에는 금외왕 전설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고 한다(今西龍, 「朱蒙傳說及老獺雉傳說」,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고구려 신화에 등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부여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부여 역시 그러한 신앙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사회 습속이나 신화 외에도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샤머니즘적 성격이 강한 제천 행사 역시 북방 문화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sup>31)</sup> 흉노가 매년 정월에 선우정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5월 龍城에서 대회를 열어 천지와 조상에 제를 올린 사실은 매우 유명하다.<sup>32)</sup>

### Ⅲ. 부여, 고구려의 정치체제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

부여, 고구려 사회의 북방 문화적 특징은 그 정치 체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부여의 경우 왕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들의 존재하였다는 점이다.<sup>33)</sup> 부여는 그 지리적 위치가 농업 경제와 유목 경제 지역의 교차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목축이 성행하였다. 부여 관명에 서 고위직에 육축명을 관칭한 것은 그러한 경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sup>34)</sup> 그리고 이는 부여가 목축을 중시한 유목·수렵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35)</sup>

관명에 가축의 이름을 붙인 사례는 목축을 기간산업으로 하였던 유목 국가에서 종종 보인다. 유목 민족인 거란이 세운 遼에는 '抹里(摩哩)'라는 관부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sup>36)</sup> 여기서 마리가 어떤 직능을 가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滿洲原流考』에 말리가 말(馬)이라는 뜻으로 나오므로, 그것이 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sup>37)</sup> 요의 이러한 사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원이 부여의 육축명 관명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명은 아니지만, 칭기즈 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할 당시 최측근 장수들을 4駿馬, 4狗 등으로 부른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 장수가 칭기즈 칸의 심복이었다는 점에서 유목민들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가축인 말과 개로 비유해서 붙인 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적 관명인 aptači(管馬, 籠馬)에서 기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up>38)</sup>

30) 三品彰影,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 6, 1954.

노태돈은 三官甸子, 鄭家窪子, 어은동 등에서 출토된 개구리 모양 유물들이 그러한 개구리 정령 숭배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노태돈, 앞의 책, 36쪽).

31) 송호정은 12월에 열린 부여의 영고를 흉노 등 북방 유목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국중 대회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였다(송호정, 『처음 읽는 부여사』, 세계적, 2015, 126~127쪽).

32) 歲正月, 諸長小會單于庭, 祠. 五月, 大會龍城, 祭其先·天地·鬼神 『漢書』 권94上 匈奴傳上.

33)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三國志』 魏書 東夷 夫餘).

34) 이병도, 『(국역)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6, 214쪽.

35) 송호정, 「부여의 정치와 사회」,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다만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목 사회에서 말 다음으로 중요한 가축인 양이 빠지고 돼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돼지는 실제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송호정, 위의 글, 1997 참조). 돼지는 읍루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물길이나 말갈, 여진 등도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길렀다. 이들 수렵 민족에게 있어서 돼지는 유목 민족의 양만큼이나 소중한 가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6) 『遼史』 권116 國語解.

37) 이성규 외, 『알타이어족 언어의 관직명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55쪽.

한편, 부여의 최고 관직으로 인식되는 大使와 왕명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는 使者가 유목 민족 선비족의 국가인 북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북위의 使者는 왕명을 띠고 지방에 대한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후 大使로 변경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9)</sup> 북위 관제가 유목적 특성이 강함을 감안한다면, 부여의 사자와 북위의 사자는 본래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부여의 제가들은 반독자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영역(사출도)을 관장하고 왕의 옹립과 폐립도 주도하였는데, 이는 선우의 선출 등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흉노의 부족장 회의, 칸의 선출 등을 결정한 몽골의 쿠릴타이, 금의 발극렬 회의, 후금의 패륵 회의 등과 매우 유사하다. 고구려의 제가 회의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 역시 정치 체제면에서 북방 문화적 요소가 짙은 제도가 존재한다. 좌, 우보제가 그것이다. 고구려의 좌, 우보는 대무신왕 5년 무렵에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신대왕 2년 국상제로의 전환 전까지 고구려 초기 최고위직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의 좌, 우보는 대체로 종신직이며, 大加급이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좌, 우보는 국상에 비해 고구려의 집권화가 미숙한 단계에서 나부에서 큰 세력기반을 가진 인물들이 보임되며 왕권과 大加 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좌우보제는 지배층이 부여, 고구려에서 출자한 것으로 여겨지는 초기 백제에서도 시행되었다. 고 백제의 좌, 우보는 역임자가 왕족이나 북부 출신으로 원고구려, 부여계 인물들이고 종신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백제의 좌, 우보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초기 국가 단계에서 사용된 초보적 통치 체제로서, 미분화된 족적 지배 질서에 기반한 정치적 전통으로 여겨진다.<sup>40)</sup>

고구려, 백제의 좌우보제와 같은 형태의 통치 체제는 그와 유사한 형태가 유목 국가들에게서 찾아진다. 특히 흉노의 사례는 매우 전형적이다.<sup>41)</sup> 유목 국가 흉노는 군주인 선우를 중심으로 좌, 우현왕에서 좌, 우골도 후까지 휘하의 영역이나 지배층을 좌우로 구분해 편제하였다. 이들 중 좌, 우현왕과 녹리왕 등은 대체로 선우의 종실 인물들이 임명되어 주로 군정을 담당하였고, 좌, 우골도후는 선우를 도와 내정을 보좌한 직책이다.<sup>42)</sup> 흉노의 이러한 통치 구조는 고구려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백제에서는 실제로 좌, 우현왕을 임명한 기록이 있다.<sup>43)</sup> 고구려 또한 동천왕이 오나라로부터 單于로 봉해졌고,<sup>44)</sup> 부여왕을 선우로 칭하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38) 이성규 외, 위의 책, 106~107쪽 참조.

39) 최진열, 「북위시대 사직의 출현과 그 의의-북위 사직의 시론적 고찰」, 『중국고대사연구』 14, 2005 참조.

40) 조영광, 「고구려 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11, 156~164쪽.

41) 置左右賢王, 左右谷蠡王, 左右大將, 左右大都尉, 左右大當戶, 左右骨都侯. 匈奴謂賢曰屠耆, 故常以太子為左屠耆王. 自如左右賢王以下至當戶, 大者萬騎, 小者數千, 凡二十四長, 立號曰萬騎. 諸大臣皆世官(중략)而左右賢王, 左右谷蠡王最為大, 左右骨都侯輔政. 諸二十四長亦各自置千長, 百長, 什長, 裨小王, 相, 封都尉, 當戶, 且渠之屬(『史記』 권110 匈奴列傳).

42) 馬長壽, 『北狄與匈奴』,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p.53.

43) 『송서』 권97 만이 백제전.

44) 『三國志』 권47 오서 오주전2.

선우는 흉노와 오환, 선비 등 유목 군주의 전통적인 칭호이다. 이는 부여, 고구려 및 백제의 지배층이 그 뿌리가 북방의 유목·수렵적 전통을 가진 집단이거나, 적어도 외부(중원 왕조)의 시각에서 볼 때 그만큼 부여와 고구려 사회가 북방 유목 민족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초기 고구려사에서 보이는 絶奴部(椽那部)의 존재가 주목된다. 椽那部는 소위 왕비족으로 지칭될 정도로 초기 고구려 사회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비를 독점적으로 배출하였다. 이러한 전통과 체제 역시 북방 유목 국가들에게서 쉽게 찾아진다. 군주(선우, 가한 등)를 배출하는 핵심 씨족<sup>45)</sup>과 이들과 연계하는 왕비족 등 유력 귀족들이 부족 연합의 형태로 핵심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특히 유목 국가의 집권층을 구성한 핵심 집단 중 왕비족이 존재한 것이 큰 특징이다. 흉노의 경우 연제씨, 돌궐은 아사덕씨, 거란의 소씨, 몽골의 옹기라트부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고구려가 계루부에서 왕을, 연나부에서 대대로 왕비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이들 유목 국가와 매우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이처럼 군주족, 왕비족 그리고 여타 유력 집단(부족)이 연합해 핵심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의 집단이나 국가를 정복해 나가며 성장하는 것은 유목 국가의 큰 특징이다.<sup>46)</sup>

한편 부여, 고구려의 수장층 칭호에서도 북방 문화적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古鄒加, 相加, 大加, ~加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장을 가로 칭하였고, 이는 馬加, 牛加 등의 명칭이 보이는 부여와도 같은 것이다.<sup>47)</sup> 백제의 於羅瑕 역시 동일 기원을 가진 단어로 파악된다.<sup>48)</sup> 부여와 고구려의 加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신라나 가야의 干<sup>49)</sup>과도 통하는 수장층을 지칭한 접미어이다.<sup>50)</sup> 부여와 고구려는 물론 신라와 가야까지 수장에 대하여 加나 干을 대표음으로 취하는 유사한 칭호로 불렀음이 확인된다.<sup>51)</sup> 이처럼 예맥계 종족의 족장, 군주명으로 사용되던 한은 점차 주변의 통구스, 몽골계 종족들에게 확산되어 갔고 유연 단계에 오면 몽골계 유목 군주의 칭호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sup>52)</sup>

본래 북방 유목 민족들이 사용하던 최초의 군주호는 선우이다.<sup>53)</sup> 이는 전, 후한대는 물론 위, 진대까지 중국 왕조가 북방 민족 수장에게 수여한 칭호가 선우였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관구검기공비에도 오환 선우가

45) 최초의 유목 국가에 해당하는 흉노는 선우를 배출하는 虛連題씨, 유연과 돌궐은 가한을 배출하는 옥골려와 아사나씨 등이 존재하였으며 거란의 아올씨와 몽골의 알탄 우룩 역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46) 김호동, 「고대유목국가의 구조」, 『강좌 중국사』 II, 지식산업사, 1989, 270~271쪽.

47) 최근에는 '加'가 거란어에서 관명을 의미하는 접두사 '웁'(음 새김은 ga)와 관련이 있다는 비교언어학적 연구 성과도 나와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성규, 「요사 국어해의 거란어 연구」, 『몽골학』 32, 2012, 171~172쪽).

48) 도수희, 『백제어 연구』, 제이앤씨, 2005.

49) 주지하듯 신라는 군주를 居西干(居瑟那), 麻立干 등으로 칭하거나, 관명에 伊伐干(舒發翰, 舒弗那), 阿干 등을 사용하며 干(翰, 那)을 지배자의 호칭으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九干, 旱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가 있다.

50) 加와 干간이음이 상통하는 같은 표현이라는 견해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白鳥庫吉, 「朝鮮古代官名考」, 『史學雜誌』 7: 4, 1896).

51) 한반도 중, 남부 지역에 위치하였던 삼한의 경우는 가 또는 간에 부족장 혹은 군주의 칭호로 사용된 예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후신이라 할 만한 신라나 가야가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2) 조영광,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시기 한·예족의 북속과 고구려인화」, 『영남학』 25, 2014, 91~93쪽.

53) 單于, 匈奴天子之號也(『漢書』 권22 文帝 本紀 後二年 六月條 夾註).

등장한다. 심지어 고구려 군주도 이 칭호를 받은 예가 있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북방 유목 민족 군주의 칭호는 유연 단계 이후 가한(간)으로 갑자기 변화되는데,<sup>55)</sup> 그 배경에는 예맥계 국가인 고구려, 부여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6)</sup> 고구려는 可汗神으로 불린 조상신도 존재하였다.<sup>57)</sup> 양자 간에는 사회 풍속 및 정치 체제 등 여러 가지의 유사점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 IV. 부여의 지리적 위치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 본 북방문화적 요소

부여는 예맥계 국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선진 문화를 이룩하며 주변의 종족과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역시 부여를 자신의 모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부여의 지리적 위치는 오늘날 중국 길림성 중북부 지역의 吉林市 부근에 그 초기 중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吉林市 지역은 제2송화강을 끼고 일찍부터 西團山 문화가 발달하며 높은 수준의 농업 중심 문화를 영위하였다.<sup>58)</sup>

그런데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부여, 적어도 부여의 지배층이 원래부터 吉林市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사료 A-1의 기록이 그것이다. A-1은 부여의 시조 동명이 북쪽의 橐(索, 薰)離國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와 부여를 세웠음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록이 비록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신화는 역사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부여의 시조인 동명이 북쪽의 모처에서 吉林 지역으로 이동해 와 국가를 건립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인다.<sup>59)</sup>

그렇다면 吉林市 지역으로 이동해 와 부여를 건립한 세력의 원주지, 즉 탁리국의 위치는 어디일까?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부여 초기 중심지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이른 시기부터 고고 문화가 발달한 북쪽 지역이 유력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吉林省 북부 지역의 松嫩 평원과 黑龍江省 남부 지역의 3肇 지역이다. 이 지역은 기원전 8세기 이전부터 白金寶-漢書 문화가 발달하였다.<sup>60)</sup> 현재는 해

54) 遣使者謝宏中書陳恂拜宮爲單于(『삼국지』 권47 오서 오주전).

55) 최진열, 「고구려 광개토태왕 전후 왕호의 성격 - 오호제국, 북위의 묘호, 시호 및 유목국가의 가한호와의 비교 -」,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36~37쪽 참조.

56) 고구려는 『舊唐書』에서 전하는 可汗神의 존재 등으로 통해 볼 때 가(간, 가한) 등은 족장이나 군주에 대한 칭호로 사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57)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舊唐書』 卷199上 東夷 高麗).

58) 기원전 7~3세기 무렵 吉林市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西團山 문화의 주체는 부여의 선주민인 예맥으로 파악된다(李健才,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85-2).

59) 『三國志』에도 부여인들이 스스로를 도망쳐 온 사람, 즉 亡人으로서 칭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동해 왔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전승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0)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黑龍江省肇源縣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省博物館考古隊,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歷史』 1982-1.

당 문화 층위 중 상층 문화, 즉 漢書 2기 문화를 초기 부여와 탁리국의 문화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우세하다.<sup>61)</sup> 그 중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제1송화강 상류 지역이나,<sup>62)</sup> 흑룡강성 濱縣 지역에서 조사된 慶華城址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sup>63)</sup>

이처럼 원부여 세력 혹은 부여 지배층이 북쪽에서 남하해 왔을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이 豆莫婁國의 존재이다. 사료에 의하면 두막루는 부여가 멸망한 후 그 일부가 북쪽으로 도망하여 세운 국가이다. 다음은 관련 기록이다.

- A. 豆莫婁國，在勿吉國北千里，去洛六千里，舊扶餘也。在失韋之東，東至於海，方二千里。其人士著，有宮室倉庫。多山陵廣澤，於東夷之域最爲平敞。地宜五穀，不生五果。其人長大，性強勇，謹厚，不寇抄。其君長皆以六畜名官，邑落有豪帥。飲食亦用俎豆。有麻布，衣制類高麗而幅大，其國大人，以金銀飾之。用刑嚴急，殺人者死，沒其家人爲奴婢。俗淫，尤惡妬婦，妬者殺之，尸其國南山上至腐。女家欲得，輸牛馬乃與之。或言本穢貊之地也(『魏書』 권100 豆莫婁傳)

위 사료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여가 망하자 그 유민들 중 일부가 북으로 달아나 두막루국을 세운 것으로 나온다. 두막루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오늘날 중국 동북 지방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두막루국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여와 별개의 종족으로 보는 견해와 사료 그대로 부여의 후예로 파악하는 견해로 대별된다.<sup>64)</sup>

두막루가 종족적으로 부여의 직접 후예임을 부정하는 견해의 주된 근거는 그 언어가 몽골계 종족인 실위 혹은 거란 등과 같았다는 기록이다.<sup>65)</sup> 수공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료 상 분명히 부여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고, 과거 부여와 같은 풍습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오히려 두막루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본래의 언어에 변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한다.<sup>66)</sup> 이러한 사례는

61) 黑龍江省考古工作隊, 위의 글, 干志耿.

62) 이종수, 『송화강 유역 초기 철기 문화와 부여의 문화기원』, 주류성, 2009, 195쪽.

63) 王綿厚, 『東北古代夫餘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2.

64) 전자는 노태돈의 견해가 대표적인데, 두막루는 부여와 별도로 존재하던 몽골계 종족 집단으로, 두막루인들이 고구려의 세력 확대에 따라 접경하게 되자 고구려의 북방 지역 인식에 영향을 받아 부여의 후계라 자칭하게 되었다고 보며(노태돈, 「부여국의 강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47~48쪽), 박경철은 부여가 선비족의 공격으로 몰락한 시기 실위와 같은 몽골계 종족인 두막루가 부여의 영역으로 잠식하여 잡거하였고, 이후 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함에 따라 송화강 이북으로 구축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박경철,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 40, 백산학회, 1992, 69~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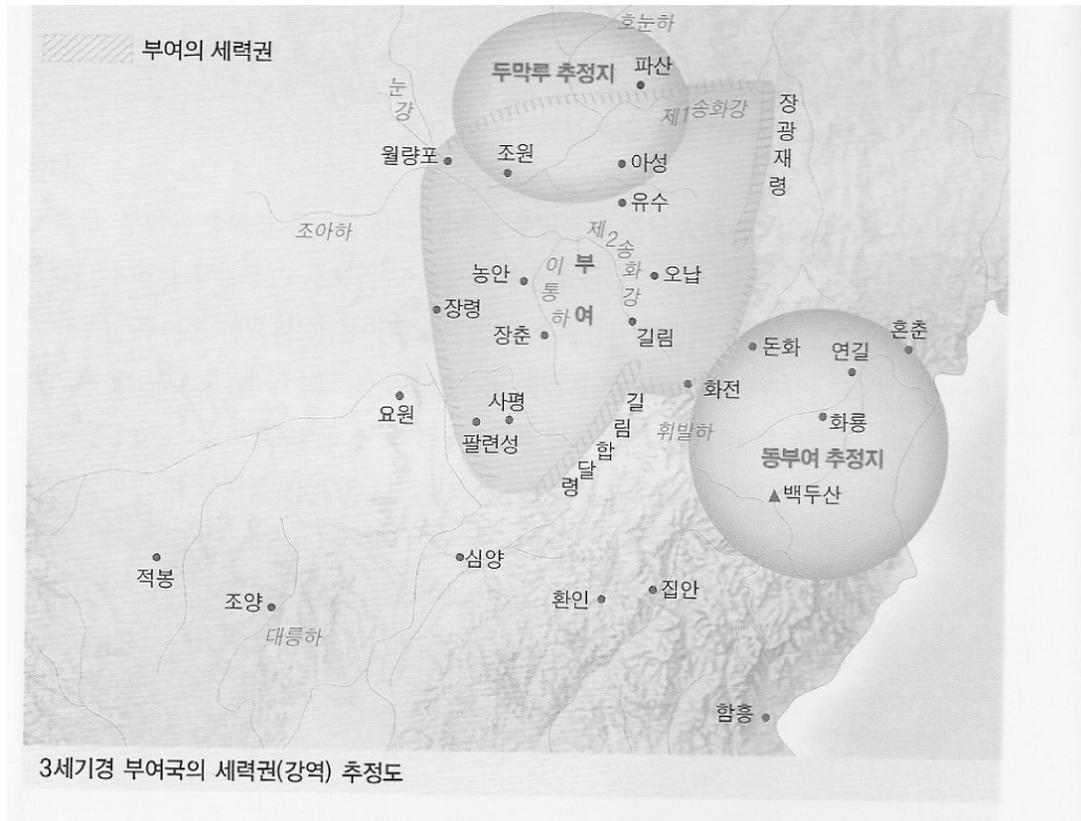
후자는 김정배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는 『魏書』 등의 기록을 근거로, 두막루는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로서 지배 집단은 예맥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습은 부여와 매우 유사했다고 파악하였다(김정배, 「두막루국 연구: 부여사의 연결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29, 1991).

65) 사료에 따르면 두막루의 언어는 실위, 고막해, 거란 등과 같은 것으로 나온다(室韋國在勿吉北千里 (중략) 國土下濕,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北史』 권94 室韋傳).

66) 유태용은 두막루의 언어가 초기에는 부여어와 동일했으나 후기에는 거란어가 많이 유입되어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유태용, 「두막루국 흥망사 연구 시론」, 『백산학보』 70, 2004, 153쪽).

다양한 고래로 다양한 종족이 교차하였던 실크로드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찾아진다.

대체로 탁리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막루국의 소재지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두막루(탁리국)의 추정지<sup>67)</sup>

중요한 점은 상기 〈지도〉에서 부여의 전신에 해당하는 탁리국과 후예라고 칭해진 두막루는 모두 오늘날 중국 길림성 북부, 흑룡강성 지역의 북방 문화적 전통이 강한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고대에는 농경 생산이 지극히 불리한 곳이었고, 거주민들도 주로 유목과 수렵에 종사하였다. 부여의 후예라 주장하면서도 몽골계 유목민족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던 두막루의 사례는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여의 초기 중심지인 오늘날 길림시 지역은 농경의 북한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기록도 그와 부합된다.<sup>68)</sup> 그런데 부여의 모태가 되었던 탁리국이나 두막루는 이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사실상 농업

67) 〈지도〉는 고구려연구재단 편, 『고조선·단군·부여』, 2004, 126쪽에서 인용한 것임.

68) 『三國志』 夫餘傳에 ‘有五穀無五果’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과실 농사는 어렵고 잡곡만 가능하였다는 부여의 기후

이 기본 경제가 되기는 어렵고 목축이나 수렵 위주의 생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이다. 실제로 이후 이 지역은 흑수 말갈과 생여진의 근거지로, 이들은 모두 목축과 수렵 활동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던 종족 집단이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유독 부여 혹은 원부여(탁리국)만 그러한 혹독한 기후 환경을 이겨내고 농경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국 부여, 적어도 부여의 지배층은 본래 유목, 수렵 경제 중심 지역에서 반농반목 지역인 부여로 이주해 와 정착하면서 현지 토착민과 융합해 부여를 세웠다고 추론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생각된다.<sup>69)</sup>

생산 방식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생산 방식이 그 사회의 성격이나 기원까지 모두 알려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유목이라는 생산 방식은 그러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에게 소위 유목 사회적 특성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유목이라는 생산 방식 자체가 유목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고수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목축은 농경에 비해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식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방식이었고, 유목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친 자연 조건에 적응해 그러한 생산 방식을 영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는 농경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 기존의 유목 생활을 버리고 농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sup>70)</sup>

부여 역시 농경에 적합한 吉林 지역에 정착하며 농업 위주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지만, 그것이 부여가 원래부터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 방식과는 달리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며 형성된 사회 구조나 습속 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여 사회 전반에서 유목·수렵 문화적 성격이 농후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농업은 부여 중심 세력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 와 吉林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동의 과정은 고구려, 백제 지역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71)</sup>

한편,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여 세력권에서 유목 문화적 특징을 가진 고고 발굴 성과들이 있어 이목을 끈다. 부여 중심지에서 서쪽에 위치한 요령성 서퉁현에서 조사된 西岔溝 유적이 그것이다. 서차구 유적은 발굴

조건은 사실상 농경의 북한계지로 이해할 수 있다.

69)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여 건국이 기원전 2세기 후반 흉노의 팽창으로 인한 동호의 분열과 이에 따른 연쇄 반응으로서 오늘날 제1송화강,嫩江 일대에 있던 원부여(탁리국) 세력이 남하하여 건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예맥계, 통구스계, 몽골계 제종족들이 교차하던 곳임은 무덤 양식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이중수, 「무덤의 변화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 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2009, 150~152쪽).

그리고 원부여(탁리국) 지역에서 부여 전기 중심지인 吉林市 지역까지 이르는 통로는 榆樹에서 서북쪽의 松原을 거쳐 肇源으로 이어지는 탁리국로나 길림시에서 舒蘭, 五常, 尙志를 거쳐 묵단강을 경유하여 북옥저로 이어지는 북옥저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중수,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5, 2013).

70) 실제로 유목민족인 위구르족이 강제로 농경 지역으로 천사되어 적응하기까지는 80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온다. (하자노프(지), 김호동(역), 『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1990, 277쪽) 그리고 남흉노 역시 중국 내지로 이동하여 농경 생활을 접하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기존 유목 생활 방식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한다(澤田 勳, 『匈奴 - 古代遊牧國家の興亡』, 東方書店, 1996 참조) 이는 생산방식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3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쉽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1) 부여족(혹은 예맥족)이 지속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였음은 동명 신화는 물론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 백제의 온조와 해씨 세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초기에는 선비족의 무덤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부여의 것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sup>72)</sup> 유적이 발견된 곳은 부여와 선비 세력권의 경계 지대에 위치하지만 대체로 부여 세력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서차구 유적에서 발굴된 여러 부장품 중 동물문양의 패식과<sup>73)</sup> 동북 등은 흉노, 선비 등 북방 유목 민족들에게서 발견되는 표지유물에 해당된다고 한다.<sup>74)</sup>

이와 유사한 유물 출토 양상을 보이는 것이 彩嵐 유적이다. 해당 유적은 西岔溝 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吉林省 東遼縣에 소재하고 있으며,<sup>75)</sup> 아직 정식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유적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彩嵐 고분군의 일부가 파괴되어 출토된 유물 중에 흉노 계통과 유사한 동물문양 패식이 나왔고 함께 출토된 청동방울과 철촉 등도 북방 초원 지역의 고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금, 은제 귀걸이 역시 西岔溝와 老河深 유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sup>76)</sup>

이들 유적과 더불어 부여 물질문화의 북방 문화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老河深 유적이다. 老河深 유적은 吉林省 榆樹縣에 소재한 3개의 층위에서 총 16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sup>77)</sup> 유적은 입지상 부여 중심지에서 북쪽에 해당된다. 이 유적에서는 漢系로 추정되는 철기 유물과 더불어 西團山 문화를 계승한 부여식의 토기 묘장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 문양의 透彫 金飾牌, 화장 풍습 등 선비 계통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 老河深 유적에서 말 머리나 이빨 등을 함께 묻는 이른 바 말 순생 풍습이 다수 보이는데, 그것은 북방 민족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매장 풍속이다.<sup>78)</sup>

老河深 유적이 북방 유목 문화적 성격이 강함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다만 그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연구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갈리는데 북방 유목 문화적 성격이 강하나 부여의 중심 문화가 아니라 반독립적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거나,<sup>79)</sup> 그것이 부여 중심 문화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부여 권역 내의 것임은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sup>80)</sup>

이처럼 유목 문화적 특성이 강한 西岔溝, 彩嵐, 老河深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원전 2세기~서기 1세기 무렵 흉노 문화의 발흥으로 인해 중국 동북 지방의 서쪽 지역에 북방 유목 문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파악

72) 처음 西岔溝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는 그 출토 유물의 양상이 북방 초원 계열과 매우 유사하여 주체를 흉노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었고(孫守道,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 오히려 파악하기도 하였다(曾勇, 『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 『考古』 1961-6). 이후 관련 연구가 축적되며 해당 문화 담당 주체를 부여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林沄, 『西岔溝形銅柄鐵劍與老河深彩嵐墓地的族屬』, 『林沄學術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73) 흉노는 주로 청동계의 양식화된 동물문양이 새겨진 허리띠 판식 또는 다른 종류의 판식, 금은 장식, 고리, 마구나 장비에 사용된 장식, 혹은 암사슴 모양으로 긴 창끝부분을 장식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를 오르도스 예술이라고 한다(르네 그루세(저), 김호동 등(역), 『스키타이와 훈』, 『유라시아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74) 潘玲, 『伊沃爾加城址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75) 劉升雁, 『東遼縣石驛公社古代古墳出土文物的研究』, 『博物館研究』 1995-1; 『東遼縣石驛鄉漢代透彫銅牌』,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6.

76) 송호정, 앞의 책, 162~163쪽.

7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1987.

78) 이종수, 「무덤의 변화 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2009, 137~138쪽.

79) 오영찬, 「유수 노하심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80) 강인옥은 부여 지배 집단 중심 문화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지만, 부여 내에 다양한 문화와 생산 양식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였다고 보았다(강인옥, 『靺鞨文化的 形成과 2~4세기 邑婁·鮮卑·夫餘系文化的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3, 2009, 29~30쪽).

하기도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동물뼈, 동물 문양 장식, 동북, 동검과 철검 등이 발굴된 老河深, 彩嵐, 西岔溝 문화 등이 이에 해당되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비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유목경제의 확산을 동반하였다.<sup>81)</sup>

위와 같은 형태의 문화 유입과 혼합은 비단 이 시기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유목 문화적 성격이 강한 유물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유목 집단의 이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부여 중심 집단이 그러한 문화적 인소를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sup>82)</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의 기원에 사료와 교통로 등을 고려할 때 부여가 유목, 수렵 문화적 전통이 강한 북방 지역에서 기원하였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방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던 부여에서 이동해 온 초기 고구려의 지배층도 그러한 습속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추측키란 어렵지 않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부여, 고구려 사회의 북방 문화적 요소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부여의 지리적 위치는 농업 경제와 유목 경제 지역의 교차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목축이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 구조와 문화적 측면에서 유목 사회적 특징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 풍속 중 취수혼은 유목·수렵 사회적 특징이 가장 농후한 것이다. 취수혼은 흉노, 거란, 몽골, 여진 등 여러 유목·수렵 민족들에게서 찾아지는 혼인 풍속으로, 아버지와 형이 사망하면 계모나 형수를 아내로 한 전통이다. 娶嫂婚(levirate)은 농경 사회에서는 악덕으로 여기지만 유목 경제하의 북방 민족들에게는 동산(가축) 위주의 재산과 종족 집단의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취수혼의 전통이 부여와, 고구려에서도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고구려에는 앞에서 언급한 취수혼 외에도 率壻婚(데릴사위제)라는 독특한 혼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또한 유목, 수렵 경제 중심이었던 북방 민족들 사이에서 흔하게 보이는 풍습이다. 솔서혼은 소위 婚納金制로, 賣買婚의 형태를 띤 것이다. 이처럼 북방 유목, 수렵 민족들과 고구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매매혼의 풍습은 부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여, 고구려와 북방 유목 사회와의 연관성은 건국신화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잘 알려진 대로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는 본래 부여 건국신화인 동명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신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티

81) 강인욱, 위의 논문, 22쪽.

82)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桓仁의 망강루 유적에서도 老河深 유적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금제 귀걸이가 출토된 바가 있다(王錦厚,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釋 - 再論高句麗族源主體爲遼東「二江」和「三河」上游狛部說」, 『社會科學集刊』 2006-1). 이것은 부여 혹은 초기 고구려 문화의 담당자가 북방 유목·수렵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지닌 집단이었음을 유추케 하는 부분이다.

프에 일부 요소를 빼고는 거의 같은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신화의 가장 중요한 화소인 日光感應은 선비족을 필두로 북방 몽골계 유목민족 시조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또한 魚鼈浮橋 설화 역시 북방계 유목민족의 설화에 흔히 등장하는 것이다.

부여, 고구려 사회의 북방문화적 특성은 그 정치 체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부여의 경우 왕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들의 존재이다. 국왕을 제외한 부여 최고의 지배자인 이들이 육축명으로 호칭을 삼았다는 것은 부여가 그만큼 목축업을 중시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반독자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영역(사출도)를 관장하고 왕의 옹립과 폐립도 주도하였는데, 이는 선우의 선출 등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흉노의 부족장 회의, 칸의 선출 등을 결정한 몽골의 쿠릴타이, 금의 발극렬 회의, 후금의 패륜 회의 등과 매우 유사하다. 고구려의 제가 회의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구려 초기에 확인되는 최고 관제인 좌, 우보제 또한 유목 사회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좌, 우보제는 초기 백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백제의 경우 지배층이 북방의 부여(혹은 고구려)에서 기원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 체제 역시 북방 유목 민족의 부족적 전통에 기초한 통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선우나 가한 아래 좌, 우현왕이나 좌, 우보라는 최고관을 두는 형태의 통치체제는 흉노를 동북아시아 유목국가들에게 빈번하게 찾아진다.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북쪽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이 북방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중국의 대 북방 민족 견제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였고, 고구려 자체적으로도 북방민족들과 적지 않은 교섭과 항쟁을 벌인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초기 고구려사에서 보이는 절노부(연나부)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이는 왕비족을 두는 유목 민족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도 부여와 고구려에서 유목 문화의 관련이 큰 유물, 유적이 발견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근래에 출토된 부여, 고구려계 유물 중에는 북방 유목 민족들이 즐겨 사용했던 동물 문양을 한 금제 관식, 귀고리 등 장식품이 출토되었고 그리고 최근 부여의 묘장 유적으로 확인된 西岔溝나 彩嵐 유적의 경우도 발굴 초기에는 유목 민족인 선비의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닮은 점이 많다.

### 〈참고문헌〉

- 강인옥, 「2~4세기 읍루문화·선비문화·부여계문화와 말갈집단의 형성 과정의 특성」, 『고구려발해연구』 33, 2009.
- 고구려연구재단 편, 『고조선·단군·부여』, 2004.
- 김영심, 「훈인습속과 가족 구성 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여성」,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 원리」, 『구비문학연구』 12, 2001.
- 김정배, 「두막루국 연구: 부여사의 연결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29, 1991.
- 김호동, 「고대유목국가의 구조」, 『강좌 중국사』 Ⅱ, 지식산업사, 1989.
- 노태돈, 「부여국의 강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 \_\_\_\_\_,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도수희, 『백제어 연구』, 제이앤씨, 2005.
- 르네 그루쎈(저), 김호동 등(역), 『유라시아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 박경철,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 40, 백산학회, 1992.
- 박승범, 「부여국의 신화적 변동과 동명신화의 시, 공간적 추이」, 『한국사학보』 37, 2009.
- 박원길, 「코톨라칸의 즉위예식에 나타나는 신목효선의식에 대하여」, 『중앙사론』 10, 1998.
- 송호정, 「부여의 정치와 사회」,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 \_\_\_\_\_,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 유태용, 「두막루국 흥망사 연구 시론」, 『백산학보』 70, 2004.
- 이성규 외, 『알타이어족 언어의 관직명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 이성규, 「요사 국어해의 거란어 연구」, 『몽골학』 32, 2012.
- 이종수, 「무덤의 변화 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2009.
- \_\_\_\_\_, 『송화강 유역 초기 철기 문화와 부여의 문화기원』, 주류성, 2009.
- \_\_\_\_\_, 「三江平原地域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 \_\_\_\_\_,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5, 2013.
- 조영광, 「고구려 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시기 한·예족의 복속과 고구려인화」, 『영남학』 25, 2014.
- \_\_\_\_\_, 「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 『선사와 고대』 44, 2015.
- 최원오, 「동아시아 알타이계 민족의 민족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구비문학연구』 11, 2000.
- 최진열, 「북위시대 사직의 출현과 그 의의-북위 사직의 시론적 고찰」, 『중국고대사연구』 14, 2005.
- \_\_\_\_\_, 「고구려 광개토대왕 전후 왕호의 성격-오호제국, 북위의 묘호, 시호 및 유목국가의 가한호와의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 최혜영,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접점」,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 하자노프(저), 김호동(역), 『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1990.
- 吉林大學歷史係考古專業·吉林省博物館考古隊,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歷史』 1982-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1987.
- 吉林市博物館,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6.

- 劉升雁, 「東遼縣石驛公社古代古墳出土文物的研究」, 『博物館研究』 1995-1.
- 李健才,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85-2.
- 潘玲, 『伊沃爾加城址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謝冰雪, 「匈奴婚俗中的收繼婚」, 『青海民族研究』 2007-2.
- 孫守道,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
- 王綿厚,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釋-再論高句麗族源主體爲遼東‘二江’和‘三河’上游貊部說」, 『社會科學集刊』 2006-1.
- , 「東北古代夫餘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2.
- 林沄, 「西岔溝形銅柄鐵劍與老河深彩嵐墓地的族屬」, 『林沄學術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 曾勇, 「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 『考古』 1961-6.
- 馮繼欽, 「我國阿爾泰系諸族的收繼婚述略」, 『龍江社會科學』 1995-1.
-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黑龍江省肇源縣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 今西龍, 「朱蒙傳說及老獺雉傳說」,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白鳥庫吉, 「朝鮮古代官名考」, 『史學雜誌』 7: 4, 1896.
- 三品彰影,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 6, 1954.
- 田中克己, 「北アジア諸民族におけるレウイレート」, 『北亞細亞學報』 3, 1944.
- 澤田 勳, 『匈奴-古代遊牧國家の興亡』, 東方書店, 1996.
- Kraheninnikov, S. Petrovich, *The history of Kamschatka and the Kurilski Islands with the Countries Ajacent*, Americana Clasica Quadrangle Books, 1962.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A Study on the Elements of Nomadic and Hunting Culture of the Puyo and Goguryo

Jo, Yeongkwang\*

Puyo and Goguryo were located in Manchuria. So Puyo and Goguryo were greatly influenced by contiguous society having nomadic and hunting culture. The elements of nomadic and hunting culture are found in custom, myth and politics in Puyo and Goguryo. Furthermore, some archeological evidence support that, Puyo and Goguryo had the unique custom of nomadic and hunting culture like levirate and matrilineal residence. There are a lot of similarity between the myth motive of Puyo and Goguryo and that of nomadic and hunting culture. In the aspect of political structure, it is explained that Puyo and Goguryo were influenced by the nomadic and hunting culture through the existence of the official titles of named by domestic animals, the tribe of queen, Jwabo(左輔) and Ubo(右輔). And some archeological evidence from the investigation performed recently, strongly support that the possibility of influence of nomadic and hunting culture on Puyo and Goguryo.

**[Key Words]** nomadic society , hunting gathering society, levirate, myth, the official titles of named by domestic animals, jwabo(左輔) and ubo(右輔)

---

\*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